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5월 13일(주일) 제1196호

CGNTV 제작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국제기독교영화제 최우수상 수상

117편 출품된 다큐멘터리부문
국내외 관객, 전문가들로부터 호평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가 국제기독교영화제(ICFF: International Christian Film Festival)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려 117편이나 출품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국내외 관객들은 물론이고 해외 영화전문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2018년 국제기독교영화제는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진행됐다. 올해 국제기독교영화제에는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11개 부문 671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역대 최대 출품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국제기독교영화제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은 지난해 4월 26일 국내에서 개

봉해서 누적관객수 12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기독교 다큐영화 흥행기록 전체 2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일부 미주지역에서도 개봉해서 2만여 명의 누적관객수를 기록했다.

작은예수 서서평 선교사

다큐영화 서서평은 서서평 선교사(1880~1934년)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다.

서서평 선교사는 22년 동안 14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과부를 돌본 작은예수였다. 조선인과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한복을 입고 진짜 조선인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이 일학교(한일장신대학교 전신), 조선간호부회(대한간호협회 전신), 여전도연합회 등을 창설한 업적이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랑하는 부모님께 행복을 선물합니다”

내일(14일)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드디어 내일(14일)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사랑하는 부모님께 행복을 선물합니다’가 막 오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에는 믿지 않는 부모와 초대한 자녀 4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는 가수 윤복희, 가수 가야랑, 배우 오미희, 플룻연주자 송솔나무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김성은 성도(성동광진공동체)는 “아버지를 두 번째로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민선아 성도(양재 온누

리교회)는 “어머니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번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세례교육 및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후속프로그램 ‘Dream 가족기차여행’은 6월 2일(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도사역본부와 오산고등학교 기독교문화는 5월 15일 오전 8시 10분 오산고등학교 강당에서 ‘111 Anniversary 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

문의: 02-3215-3214

2018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

6월 27~2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올해 마리아행전 주제는 ‘사랑의 힘’이다. 강사는 27일 이재훈 담임목사, 김영애 권사(갈대상자) 저자, 28일 벤 토레이 신부(예수원), 김성근 목사(노원한나라은혜교회), 29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지선 교수(한동대, <지선아 사랑해> 저자)다. 저녁 7시 30분에는 ‘직장여

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27일 유기성 목사, 28일 이지선 교수, 29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마리아행전 4만원,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2만원이다. 6월 20일까지 등록하면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할인해 준다.

홈페이지: www.onnuri.org

문의: 02-3215-3667, 02-570-727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한국에서 의사로서 이보다 좋은 이력이 또 있을까? 김태훈 선교사(에티오피아)의 약력이 그렇다. 그는 한국에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내던지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원인도 모르고,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 무서운 질병 앞에 선교에 대한 의지가 꺾일 법도 한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더 뜨겁게 타올랐다. 김태훈 선교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에티오피아에서 의료인 교육과 보건증진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4일, 의연하고 태연하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님께서서 함께 하신다면...”

연약함에도 굴하지 않는 김태훈 선교사

나무토막 같았다. 걸음걸이도, 말하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다. 그가 앉고 있는 파킨슨병 때문이다.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인데 치매, 뇌졸중과 더불어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힌다. 손 떨림, 몸의 경직, 평형감각 상실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음식을 삼키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마비와 치매 증세로 이어져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원인도,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그 무서운 병이 아직 너무 젊은 김태훈 선교사에게 왜 발병한 것일까? 원망스러웠다. 아픈 선교사와 무리하게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다. 미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괜찮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진짜 편안함과 담대함이 녹아있었다.

잘 나가던 대학병원 의사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다

김태훈 선교사는 외과의사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학교인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고, 유명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했다. 아마 그대로 한국에 남았다면 의사로서 명성과 부를 충분히 누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인 길을 마다하고 2013년 3월 훌쩍 아프리카로 떠났다.

김태훈 선교사는 형(김태완 목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목사)의 소개로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온누리교회에 왔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소명을 가슴에 새겼다.

“제가 대학생 때 제주도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의료봉사를 한 경험도 그가 선교사로서 뜻을 품고 행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군복무 대체로 코이카 봉사단원이 되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의료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현지인 교회를 다녔는데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목회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에티오피아 현지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진 김태훈 선교사.

깨닫게 되었어요.”

선교라는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던 김태훈 선교사가 드디어 실행에 나섰다. 잘 나가던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남수단 사업에 지원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대형병원 의사가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까?

“우리나라에는 저 말고도 의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의사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의사가 더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쏟아져도 돌아가지 않아도 돼”

2013년 3월 남수단에 도착했다. 그곳에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말라리아에 걸렸다.

“정말 심하게 앓았어요. 말라리아에 걸리고 회복되는데 2개월이 넘게 걸렸을 정도였어요. 너무 더디게 회복되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낫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날 이후 발이 아팠다. 단순히 말라리아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좋지 않았지만 참아가며 사역했다. 그러다 남수단 내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에티오피아로 넘어왔다. 2014년 9월, 한국에 들른 김에 그동안 아팠던 발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듣고 말았다. 파킨슨병이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못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부모님은 선교활동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저도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선교하러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큰 병에 걸리니까 허망하더라고요.”

굳어가는 몸과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쏟아져도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 때문에 선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내 김희연 선교사에게도 찾아오셨다.

“아내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예수님 품에 천진난만한 아기처럼 안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을 보니까 예수님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선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우리는 그분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확고한 음성에 힘입어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복귀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뚜렷한 치료법도 없고, 건강 상태가 언제 얼마나 나빠질지도 모르는 병을 안고 선교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는 않았을까?

“병(약함)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김태훈 선교사는 지난 11일 약을 한보따리 받아 들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갔다. 그의 가족과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는 지금 급속하게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미전도종족도 20개나 되고요. 주변국가(남수단, 수단,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등)들은 모두 무슬림 국가들이라 선교활동에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선교가 자유로워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전도하면 주변 나라들도 복음화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의 몸은 점점 더 굳어갈 것이고, 그래서 더 불편해지겠지만 하나님과 선교를 향한 그의 열정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김태훈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기도편지: pierced@naver.com

문의: 2000선교 02-3215-3216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홉이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로해지고 몸이 편찮아졌을 때 요셉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홉은 손자들을 껴안고 입 맞추며 축복했습니다. 할 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손자 손녀를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영적인 축복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려와 어루만져달라고 구하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그 어린이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손을 얹고 축복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껴안고 축복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또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미 있는 언어, 의미 있는 축복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안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연령이 있고, 1차적으로 부모나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꼭 껴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신 아이들은 분명 수십 년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린이 시기를 만드시고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어린이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어린이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자인지 다툰 때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

를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까? 누군가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어쩌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가 자신을 낮출니까? 어떤 면에서 어린이가 자신을 낮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린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읊니다. 어린이는 예배당이건 유엔 총회장이건 가리지 않고 읊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어린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권력을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할 줄도 모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옷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줄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 거짓된 권세가 물들지 않은 상태가 바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4~15절).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힘을 얻고, 지식을 얻습니다. 경험과 능력도 얻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천진난만한 웃음입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얼마나 많은 순수한 웃음을 잃어버립니까? 어른들에게서 웃음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또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잃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를 의지하는 정도가 큼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전능하다고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라면서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씩 현실적이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에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안아주면 아이들은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부모의 팔이 얼마나 아픈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큰 장에는 ‘자기의존’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힘과 지혜로 살아가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또 하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어린이들은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누군가 무엇을 주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스스로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받습니다.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받습니다. 따뜻하게 돌봄을 주는 손길이라면 안도감을 느끼면서 더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대상이 어린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선물을 받는 태도입니다. 어린이들은 선물을 그냥 받습니다.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선물을 그냥 즐거워서 받는 것입니다. 갚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어린이에게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어린이가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선물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갚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갚

이 주시는 용서의 선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선물을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노력해서 받을 자격이 있고,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기 전까지 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겠다고 하고, 자격을 갖춘 능력이 없으면서 자격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야 합니다.

어린이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갚었다고 하니까 안 받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갚없이 주는 것을 잘 받았습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가치에 물들어서, 갚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보험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하셨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자격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스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린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면 어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린이처럼 온순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의존과 순종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이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선물을 어린이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어린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가정의 위기

1. 소유권 다툼 '고부·장서갈등'
2. 사랑과 전쟁 '부부갈등'
3. 가정의 탄생 막는 '비혼과 만혼'

“네 부모를 떠나 부부의 길을 가라!”

시어머니(장모)는 엄마가 될 수 없고, 며느리(사위)도 딸이 될 수 없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 ...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독립해야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 1위가 '장서갈등'이라는 조사가 있다. 결혼정보업체 A사와 재혼전문사이트 B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이혼사유 1위는 장서갈등(처가의 간섭 및 갈등)이다. 무려 26.2%를 차지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소모적인 소유권 다툼인 고부갈등도 가정을 흔드는 위기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40대 부부 이혼사유 3위가 고부·장서갈등(7.4%)이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과 “딸 같은 며느리”라는 등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 도대체 고부·장서갈등은 왜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하와의 장수 비결은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다. 왜냐하면 장모가 없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고부갈등’, 장모와 사위의 갈등을 ‘장서갈등’이라고 한다. 이 고부·장서갈등이 가정을 흔들고, 깨뜨리고,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고부관계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사이도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만큼 골이 깊은 사이도 없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악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일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이보다 심각한 고부갈등 사례를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고부갈등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것이다. 고부갈등 가해자는 악독한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다. 세대와 생각이 다른 며느리들의 횡포도 불만하다.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결국 둘 다 똑같이 잘못 해놓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장서갈등이 또 다른 가정의 위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시대 사위들에게 ‘백년손님’이라는 말은 고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 됐다. 지난해 이혼 경험이 있는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한 지 3개월 이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종용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남성 24%가 장서갈등을 꼽았다.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 고부갈등이 생기면 이혼을 종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였다. 이 시대 남편들은 장모나 처가로부터 끊임없이 간섭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부 장서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

고부·장서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디어, 세대차이, 교육수준, 잘못된 애착관



계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부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무조건 어렵고, 까다롭고, 부담스럽고, 형식적인 존재이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내 아들 빼앗아 간 고약한 존재이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만 센 사람이라는 인식을 여과 없이 방영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장모에게 사위는 내 딸을 무조건 편안하게 모셔야 할 머슴이고, 사위에게 장모는 지나치게 아내와 밀착된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고부·장서 관계는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있다.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고부·장서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까? 결코 아니다. 친부모자녀보다 사이좋은 고부·장서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고부·장서관계보다 훨씬 많다.

세대 차이도 고부·장서갈등을 유발한다. 시어머니와 장모는 옛날사람이고, 며느리와 사위는 요즘사람이다. 부모세대가 살아온 방식

과 지금세대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같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아내가 남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하고, 아침밥을 안 차려주는 것은 남편이 곧 하늘이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겨온 시어머니들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들의 생각은 다르다. 남편을 친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처지니까 가사일도 나눠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며느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있고, 그 반대일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교육수준 차이도 고부·장서갈등을 만든다. 시어머니들과 장모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식들 공부시킬 형편이 되지 않은 집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당시에는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강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

의 교육수준이 남성들의 교육수준 보다 낮았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이 시대 며느리들은 고등교육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대학은 기본이고, 외국유학까지 나온 재원들도 많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가 인식,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고부·장서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잘못된 애착관계도 고부·장서갈등의 원인이다. 일부 시어머니와 장모들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은연중에 내 아들 혹은 내 딸을 빼앗아 간 고약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애착관계가 고부·장서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고부·장서갈등은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한 아내가 반대급부로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다 발생하기도 한다. 아들이 엄마의 ‘대리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아들이 장성해서 아내를 맞이하면 원하던 원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아들을 빼앗아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고부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장서갈등도 마찬가지다. 친정엄마와 딸이 지나치게 결속되어 있을수록, 친정엄마가 경계를 넘어서면서부터 불거진다.

행복한 가정 깨뜨리는 심각한 위기

고부·장서 갈등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한다. 그 심각한 문제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옛말에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불효자에게서 불효자가 나온다”가 된다. 고부·장서갈등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진 시집살이를 경험한 시어머니가 자신만큼은 절대로 며느리에게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가능성이 낮다.

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그냥 참지 않는다. 고된 시집살이를 묵묵히 인내했던 시어머니 세대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고분고분 받아주고, 인내할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부·장서갈등은 이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수시로 구박하고 남편과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목 졸라 죽인 사건, 80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한 며느리, 식사 중에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목 졸라 죽인 사건, 남편과 시어머니와 불화를 빚어오던 40대 여성이 7살 난 아들을 켜안고 투신한 사건, 가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사건 등 반인륜적 패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고부·장서갈등은 분명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다.

서로 다른 것이 상식이다

시어머니(장모)는 인생에서 두 번째 만나는 어머니다. 며느리(사위)는 친어머니와 두 번째 어머니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친어머니로부터 경험한 문화, 언어, 사고, 음식 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어머니는 결코 친어머니가 될 수 없다. 시어머니(장모)는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비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친어머니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처음부터 시어머니(장모)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배우자를 고를 수는 없다. 결혼하자마자 고부·장서관계가 친부모처럼 가깝고 친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고부·장서관계는 시간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쌓아올린 탑과 같다. 음식, 문화, 가치관, 세계관도 마찬가지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것이 정상이자. 최소 20년 이상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갈등을 있을 가

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이를 검토하고, 적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고부 장서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부·장서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식의 대응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부부관계가 아무리 좋

신의 입장과 고충을 배우자와 부모에게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아들과 딸 역할에서 물리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배우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정원리다. 문제는 애착관계에 있던 부모와 자녀가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벗어나야 한다. 부부 중 어느 쪽이든지

고부·장서관계는 피할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한 고부·장서갈등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며느리와 사위가 먼저 양가부모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한다면 고부·장서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고부·장서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감정, 정서, 생각을 얼마나 건강하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해결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아무리 어렵고, 불편해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결국 고부·장서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떠남’이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과 동시에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성경적 가정원리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시부모와 장인장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갈등해결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고부·장서갈등은 결코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 ‘젊은부부학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행복한 부부학교’ 등이 그것이다.

문의: 가정사역 02-3215-3268

두란노 아버지학교 02-2182-9100

두란노 어머니학교 02-2182-9114

고부·장서갈등 만드는 생각들

시어머니 “내 아들 빼앗아간 고약한...” “눈치가 보여서 작은 일도 못시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며느리 “결혼했으면 내꺼지” “나는 어머니 세대와 달라요” “왜 자주 참견하세요”
장모 “얼마나 귀한 딸인데...” “우리 딸도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 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사위 “내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네...”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다고 할지라도 부모자녀관계를 뛰어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자녀관계는 혈연관계이고, 부부관계보다 훨씬 오랜 시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모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

고부·장서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혈연관계인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자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했다고 해서 아들과 딸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녀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의무와 책임은 계속 이어진다. 부모와 자녀, 고부·장서관계에서 서로 도울 일은 돕고, 자신의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점이다. 고부·장서갈등을 극복해야 할 당사자도 결국 부부다.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영화 <B급 며느리>.

<B급 며느리>(2017)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고부갈등을

‘미움’의 반대말은 ‘이해’

다룬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B급 며느리>에 등장하는 며느리는 시댁에 가지 않는다. 보통 시어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행동하지도 않는다. 며느리의 본분이라는 집안 대소사에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을 뒷목잡고 쓰러지게 하는 나쁜 며느리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나쁜 며느리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한다. 남편을 살뜰히 챙기고, 자녀를 씩씩하게 키우고 있다. 그 나쁜 며느리는 누가 봐도 A급 아내이자 엄마이다. 한 여자의 아들이자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게 된다.

젊은 시절 혹독한 시집살이를 경험했던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며느리의 본분을 강조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를 개선할지 해법을 모색하던 아들이자 남편은

이 문제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의 모순이자 부모보다 더 가난한 자식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로 힘들어 할 당시 남편(시아버지)은 철저히 방관자였다. 그녀도 시집살이가 당연하다고 여겼다. 당시 남편에게는 혼자 벌여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리며 가부장제를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경제력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겪은 시집살이의 고통을 모른 채했던 남편은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부갈등에도 여전히 방관자 입장을 취한다. 반면 고정수입이 없는 아들은 부모에게 돈을 빌려 쓰는 신세다. 며느리도 결혼과 출산, 육아 이후 경력이 완전 단절된 채 전업주부가 되었다. 부모에게 의존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들 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은 굴뚝같지만 딱 거기까지다.

부모에게 손 벌리고 살면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몹시 못마땅하다.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며느리도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은 것은 아니다. 자력으로 세 식구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벌기를 원한다. 실제로 일을 알아보고 있지만 경력이 단절된 기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며느리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한다.

시종일관 물러남이 없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느 쪽의 화해의 제스처로 평화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영화의 감독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이유를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치열한 다툼과 갈등 끝에서 서로를 위한 타협을 했다는 것이다.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면 수많은 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고부갈등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웃 찾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들

만나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는 ‘수원 사회선교부’

이웃들을 찾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독거노인, 새터민, 이주민, 노숙인, 결손가정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만나고, 위로하면서 복음까지 전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벌써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웃을 일이 별로 없다하시던 전명숙 어르신(83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김현옥 성도가 집에 온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르신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복도만 하얗게 바라보고 계셨다. 드디어 김현옥 성도가 모습을 보였다. 어르신의 표정이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수줍게 꽃피운 매화꽃보다 예쁘게 변했다. 전명숙 어르신과 김현옥 성도는 매주 한 번씩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꽤 자주 만나는 편인데도 볼 때마다 반갑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김현옥 성도는 어르신께서 드실 도시락을 가져다 드린다. 그 도시락에 담긴 음식보다 소중한 사랑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어르신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전명숙 어르신은 김현옥 성도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다. 사랑스런 눈빛으로 어르신을 바라보는 김현옥 성도만 오면 어르신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젊은 시절부터 아들에 손주이야기까지 쉴 틈이 없다.

전명숙 어르신은 아들 구용갑(61세) 씨와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뇌경색을 앓고 있다. 그 후유증으로 왼쪽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치료받느라 병원에서 4년 이상 생활하면서 남양주에 있던 집을 팔고 병원 근처인 수원으로 이사했다.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이다. 그 사랑 덕

분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밖에 한번 나가는 게 쉽지 않다보니까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외롭게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주시는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 사회선교부에서는...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소속 독거노인팀은 매주 주일마다 도시락과 쌀을 나눠주면서 어르신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노숙인, 성매매 여성, 결손가정, 새터민, 이주민, 소년원 청소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수원 사회선교부는 2004년 시작된 긍휼사역 기도모임이 모태다. 당시 1년 동안 기도하고 2005년부터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밥퍼사역’과 ‘사랑의 쌀나눔’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들이 모이고 모여 2007년 수원 온누리교회 긍휼사역팀을 출범시켰다. 지금은 명칭을 ‘사회선교부’로 변경하고 총 7개 팀(다문화팀, 노숙자팀, 독거노인팀, 새사람사역팀, 오병이어팀, 구제봉사팀, 사역지원팀)이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팀에서는 새터민과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수원시 우만동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함께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화성M센터가 설립된



김현옥 성도와 전명숙 어르신, 구용갑 성도(왼쪽부터).

뒤로는 이주민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있다.

노숙자팀은 백합센터(권태경 목사)와 함께 수원역 노숙자들에게 간식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과 셋째 주 화요일에 노숙인들을 찾아가고 있다.

독거노인팀은 매주 주일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쌀과 도시락을 전달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춘천소년원과 라합의집에서 사역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는 춘천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춘천소년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봉사팀으로 소문이 나있다. 라합의집은 수원역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오병이어팀은 팀 이름 그대로 결손가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 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사역이다. 2주에 한 번씩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오병이어교회를 방문해서 반찬을 만들어준다. 그 반찬들은 오병이어교회에서 결손가정에게 전달하고 있다.

구제봉사팀은 쌀과 구제용품이 필요한 사역팀에 배분하고, 사역지원팀은 어려운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돕고 있다. 군부대 소속 산성교회와 과거 집장촌에서 활동했던 할머니들을 돌보는 햇살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을 구제봉사의 날로 정하고 사회선교를 홍보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문의: 010-5071-3076

사역칼럼



윤기홍 장로
(수원 사회선교부)

오래 전 우리 순예늘 예수님의 이웃사랑 본을 보여주시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다. 그 집사님 부부는 사정이 어려운 가정이었으면 밤에 몰래 찾아가 슬그머니 쌀자루를 놓고 오곤 하셨다. 한 번은 순식구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집사님 부부가 자신들의 월급을 모두 털어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네주셨다. 날로 각박해지는 요즘 그 집사님 부부의 환한 미소가 그립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이웃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과 병들고 가난

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으며 외면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크리스천들이 외면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봐야 할 이웃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마 25:40).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가진 것을 자랑하며 손을 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말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작은 그림자가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섬기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기를 원하신다.

봄이 얼마나 따스하고 포근한지 알 수 있는 것은 겨울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과 환경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따뜻한 봄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4-35).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이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마음 없는 고백과 섬김은 허공만 울릴 뿐이다. 우리의 선행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을 해서도 안 된다. 점점 각박하고 차가워지는 세상에서 교회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넘치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차가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메마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교회를 비난하고 멀리했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사회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입양은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제이홈(J Home), 5월 20일 ‘입양 전 세미나’ 개최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 제정했다. 입양의 날을 보내며 입양에 대해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세미나가 열린다. 사회선교부 제이홈(J Home)에서 5월 20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행복한 입양이야기’를 주제로 입양 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았다.”
맞다. 부모자녀관계는 꼭 혈연관계로만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분명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선호하는 것 같지
않다. 물론 과거에 비해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보건복
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입양된 아동이
2010년 1,462명에서 2012년 1,125명으로 줄었
고, 2014년에는 637명, 2016년에는 546명으로
급감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약 63%나 감소
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입양쿼터제’의 영향으
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이 크
게 줄었다. 2007년부터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을
매년 10%씩 축소하는 제도가 바로 ‘입양
쿼터제’다. 2007년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이
1,388명이고,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264명이
다. 입양쿼터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이 줄어든
것은 그 자체만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꼭 좋
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012년부터 신
고제였던 입양이 법원 허가제로 변경됐다. 이
를 ‘입양특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
되면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 수가 대폭 줄었
다. 문제는 그 부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해
외로 입양된 아동이 2011년 916명에서 2017

년 398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
다.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해외로 입양되기까
지 2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입양을 기
다리는 아이들 상당수가 위탁가정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입양 그 후 ... 날마다 웃음꽃 피는 우리집

부모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
주는 그 아름다운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
도 너무 모르고 있다. 입양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
키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입양을 통해서 날마다 웃음꽃 피는
성도들이 있다. 이단열, 김정아 부부(한강공동
체)가 그 주인공이다.

이단열, 김정아 부부는 지난해 9월 예후이를
입양했다. 예후이를 입양한 날부터 그 가정에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다. 그들은 만
40세에 결혼했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지만
4년 동안 생기지 않았다. 낙심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교회게시판에 걸려
있는 입양 전 세미나 전단지지를 보고 고민 끝에
세미나에 참석했다.

“입양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입양한 부부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입양이 우리 부부만의 고



지난해 3월 열린 입양가족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

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양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
졌고요.”

사회선교부 제이홈에서 개최하는 입양 전
세미나 참석 이후 이단열, 김정아 부부는 본격
적으로 입양을 준비했다.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양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차례 상담도
받았다. 입양 관련 책도 가리지 않고 읽었다.
그렇게 부모가 될 준비 끝에 지난해 9월 생후
2개월 된 아들 예후이를 만났다. 그날 이후 모
든 게 달라졌다.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행
복할 수가 없다. 예후이의 모든 것이 좋았다.
잠자는 모습도, 칭얼대는 모습마저도 사랑스
러웠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해도, 잠을 제대로
못자도, 취미생활을 못해도 행복했다. 모두 예
후이 덕분이다.

“예후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
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있어요. 예후이가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
습니다. 내년에는 예후이 동생을 입양할 계획
도 하고 있고요.”

온누리교회에는 이단열, 김정아 부부처럼
입양을 고민하거나 입양 절차를 도와주는 사
역팀이 있다. 사회선교부 ‘제이홈(J Home)’이
다. 제이홈에서는 입양가정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입양에 관심 있는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양 전 세미나와 입양 후 세
미나, 입양가족 정기모임, 입양가족캠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오는 5월 20일 오후 5시 서빙
고 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는 ‘행복한 입양
이야기’를 주제로 입양 전 세미나를 개최한
다.

오창화 팀장은 “입양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느끼길 원하
는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10-2049-8210

사역칼럼



정태경 장로
(제이홈 담당)

몇 해 전 제이홈(J Home)을 섬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입양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이홈을 섬기고 있다. 입양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크리스천들이

입양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담컨대 크리스천들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신앙으로 무장된 좋은 부모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미래에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것이다.

자녀를 입양한 부모님들은 “훌륭하다”는 말보다 “축복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좋아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입양가족들과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한다. 자연스럽게 입양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자체가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입양된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나는 자녀를 입양한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입양한 자녀들이 7살이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애도기’를 겪는다. 그래서 입양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시기를 잘 지내도록 기도하며 공부한다. 귀한 자녀가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이 때문에 가족 없는 아이들 대부분을 해외로 보냈다. 최근에는 의식이 많이 전환되어서 국

입양과 크리스천

내 입양이 늘고 있다. 나는 이 또한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입양의 약 70%를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약 40% 정도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85%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은 입양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기독교 입양문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고아 같은 우리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요셉의 입양아였고, 우리 모두도 영적인 입양아들이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받음을 ‘입양 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입양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고아에 대해 말

씀하신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셨다(신 27:19).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고아들을 돌봐야 한다. 입양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의 책무를 버리는 일이다. 성경은 부모자녀관계를 소유로 보지 않는다. 육신의 부모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만드는 것은 부부가 아니다.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조성(making)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가 태어나도록(beggetting) 하는 것뿐이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책임을 가지고 양육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부모는 입양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입양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선교부 제이홈에도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

“눈물 흘리는 아동과 난민을 위하여”

NGO 더멋진세상 신규 정기후원자 3,273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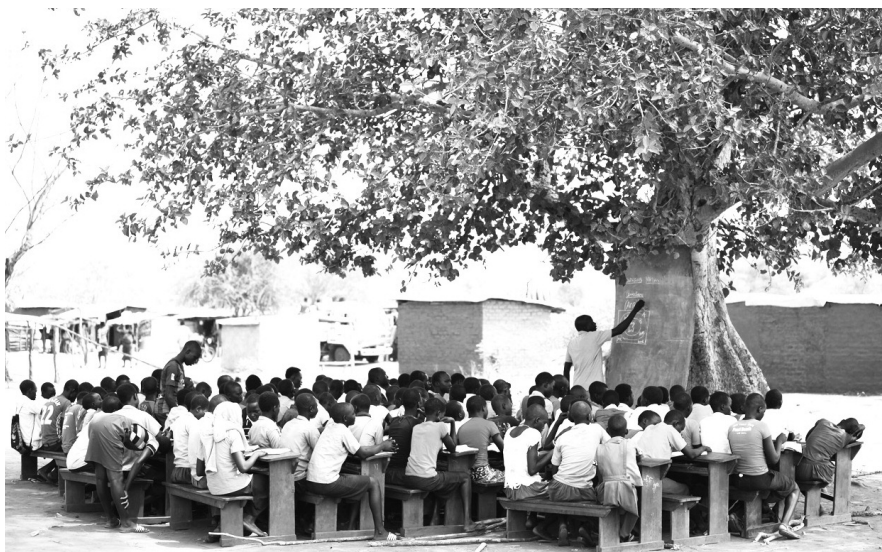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달 22일 개최한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한 신규 정기후원자가 3,273명이나 늘었다. 약정금액은 8억 7천만 원에 달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고귀한 사랑과 관심을 눈물 흘리는 아동과 난민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은 이번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후원 받은 현금으로 아동과 난민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NGO 더멋진세상은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학교건축과 난민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남수단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 모요 지역에는 1,5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있다. 학교 건물이 없어서 임시 천막과 나무그늘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튼튼하고 안전한 학교다. NGO 더멋진세상은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학교를 건립하고 있다. 이 학교가 완공되면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서도 차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영유아발달(ECD)센터를 설치해서 현지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90여 명의 아동들이 영유아발달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다.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 설치한 영유아발달센터는 지난해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라는 땅 영역에서 저금통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완공했다. 지난 2월에는 저



학교가 없어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는 우간다 남수단 난민 아동들.

금통을 모아 전달해준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성경캠프를 진행했다. 그 마을에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주일학교도 열고 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영유아센터를 신설하고, 이웃마을인 가혼도 마을까지도 영향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기초교육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레바논 당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공식적인 난

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에서 온 아동난민들이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화가 되지 못하고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GO 더멋진세상은 시리아에서 온 아동난민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6세부터 9세까지 아동난민 60명에게 국어, 영

어, 수학 등의 기초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현지 지역자들이 아동난민들의 가정을 찾아가 신앙교육과 심방도 하고 있다.

어린이 생명을 살리는 사업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도 부지런히 전개할 예정이다. 대상 국가는 네팔이다. 네팔 극서부 정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HIV(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부모들이 국경을 넘었다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돌아온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는 나머지 가족들의 2차 감염이다.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을 소홀히 여긴 탓도 크다.

NGO 더멋진세상은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예정이다. 현재까지 NGO 더멋진세상은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동 60명에게 영양제, 학용품, 교복 등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 아동들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선교칼럼



김광동 장로
(NGO 더멋진세상 CEO)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앞둔 2010년 8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35년 동안 외교관 재임 후에 은퇴한 나를 동경으로 부르셨다. “온누리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인종과 종교, 이념, 국경을 초월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구촌의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되돌려 주자”고 하셨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NGO를 설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해 12월 말 NGO 더멋진세상이 시작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창립 초기인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태국 홍수, 터키 지진 피해 현장 등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을 향해 달려갔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선정해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더멋진마을 조

성사업’도 실시했다.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지역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최빈국에 속하고, 영적으로 이슬람의 남하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영적 최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며, 의미가 있었다.

인간으로서 필요한 기본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비위생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고 우물을 파고, 급수탑을 세웠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소를 건축하고 의약품도 제공했다. 해마다 10여 명의 산모가 사망했던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는 NGO 더멋진세상 봉사단원이 상주하게 된 지 1년 만에 산모 사망자가 2명으로 줄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후원자들이 ‘Stop Malaria’ 캠페인을 통해 보내주신 모기장 덕분에 말라리아 환자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NGO 더멋진세상이 간다

무슬림 공동체가 NGO 더멋진세상이 흘려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변해가고 있다. 메마른 사막에서 딸기가 열리고, 병들어 죽어가던 닭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계란을 생산해내고, 제빵교육과 태양광전기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 사막을 횡단하는 도로가 뚫려서 더 이상 폐쇄적인 마을이 아니라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을에 자생적으로 조그마한 교회가 생기고, 마을이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건소와 조산소를 건축해줬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진통을 참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달려가야 하는 비극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업교육을 실시해서 동일한 면적에서 전보다 4~5배 이상의 수확을 하고 있다. 지금은 마을마다 협동농장을 운영하며 공동으로 소득을 분배하고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세

네갈과 르완다 지부는 계속해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확산시켜가기 위해 새로운 마을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 하나님 창조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총체적 선교 전략(CHE)이 모양을 갖춰가고, 온전한 선교를 완성해 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 시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눌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과 지역, 복음의 불모지인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까지 사역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선교에 목숨 걸고 달려가신 고 하용조 목사의 정신을 기억하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한다. NGO 더멋진세상이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7

우주 속의 나

광활한 우주의 티끌 같은 나이지만,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다. 진정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보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 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인생은 봄: 1세~20세, 여름: 21세~45세, 가을: 46세~70세, 겨울: 71세~세상 끝이다. 계절은 각각의 사명이 있다. 봄에는 새싹이 움트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인생이 무르익는다. 덕이 있어야 한다.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다. 겨울에는 낙엽이 지고 떨어져서 거름이 된다. 사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의 밑거름으로 살아가자.

빛나는 황혼

아름다운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건강하게 생활하며 용모를 단정하게 하자. 고고하고 당당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자. 단아하고 부지런하자. 낙후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꿈을 버리지 말자. 말은

많이 듣고 적게 하자.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말자. 칭찬을 많이 하면 기쁨과 행복이 온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말자.

노인은 성실하고 경험이 많고 정이 많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가족들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지고 원만해지자. 자식들이 잘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하자.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자.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신앙을 갖자. 인간의 의는 믿음을 아는 것이다.

황혼의 태양이 더 붉게 이글거린다

늙어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음을 깨달으니 모든 것이 신비롭기만 하다. 보잘 것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한다.

진정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보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너무 놀라운 축복이다. 하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온전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붙여넣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찬란한 끝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새로이 회복된 삼라만상의 티끌 위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확신에 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원천이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가자. 정직한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덕을 세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쁨과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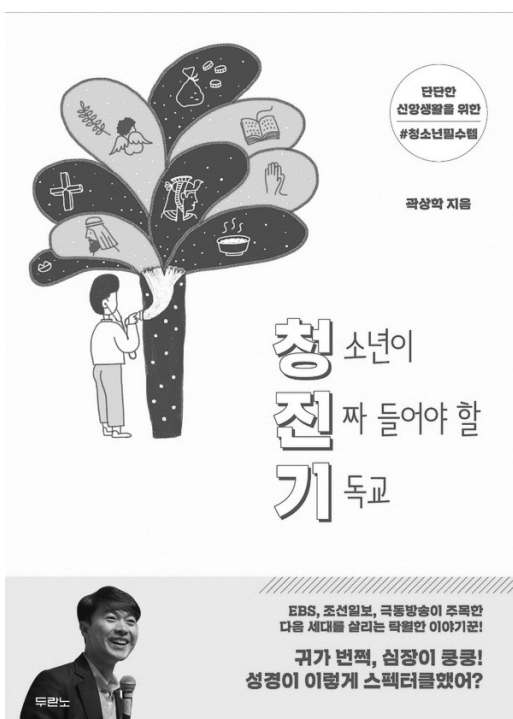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인생의 황혼녘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계기가 된다. 황혼의 태양이 더 붉게 이글거린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자

질투는 몸까지 병들게 한다. 움켜쥐지 말라. 너무 인색한 중년은 외로울 뿐이다. 항상 밝은 성격을 가져라. 중년기의 불안과 초조는 건강을 위협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의존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감정에 솔직해라. 젊은 척, 아는 척, 부유한 척하는 자는 삼척동자에게도 왕따 당한다. 아무 일이나 참견하지 마라. 참견보다는 후원과 격려에 치중하라. 신앙을 가져라. 신앙생활은 인생의 석양을 우아하게 만든다.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라.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만큼 외로운 사람 등의 표현은 자신의 나약함을 노출할 뿐이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자. 이제는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체념할 것은 빨리 체념하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자.

두란노 신간

청소년들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청진기〉
확실히 저 | 두란노 | 14,000원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읽기를 기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물 있기 때문이다.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극단적 허무주의 등 잘못된 가치관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 안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한다.

바로 여기,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한 권 나왔다. 확실히 목사의 신간 〈청진기〉이다.

〈청진기〉는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의 약칭이다.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신앙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무

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저자 확실히 목사는 성경과 자신의 삶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성경은 실제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능력”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도록 도와주고 있다. 가령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휴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 날이다.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에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날로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있다.

주일은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는 예배의 날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다. 이처럼 〈청진기〉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청소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한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청진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청소년 사역자들에게도 유익하다. 청소년 사역의 올바른 방향과 지침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확실히 목사도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야 방향을 끝낼 수 있었다. 지금 꼭 목사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의 모범교사’와 ‘수업명인’으로 선정되었고,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새롭중학교 진로교사이면서 강동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교육목사로 섬기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지난해 7월에 열린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 교육

17일 서빙고 두란노홀, 24일 양재 화평홀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 교육이 5월 17일과 24일에 실시된다. 5월 17일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24일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된다.

러브소나타 참가자 교육에서는 샷포로 지역 설명, 현지 방문교회, 봉사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 간단 일본어 회화와 일본어 찬양을 배우고 중보기도도 한다. 러브소나타 샷포로에 참가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러브소

나타 샷포로 집회를 위해 전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자리아니만큼 참가자 교육

에 꼭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샷포로 기 · 도 · 제 · 목

- 5월 14일(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러브소나타가 되기를
- 5월 15일(화) 이재훈 담임목사, 오오시마 목사님께 기쁨 부음이 있도록
- 5월 16일(수) 예비 된 영혼들이 많이 참석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 5월 17일(목) 한국과 일본 스태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 5월 18일(금)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 5월 19일(토) 러브소나타를 통해 샷포로 교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 5월 20일(주일) 날씨, 장비, 세관 절차 등 모든 상황이 순조롭도록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5월 20일 (주일)
시간: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4월 1일~5월 5일까지 등록 성도

강남A 이윤신	장항희	오진환 전정원 최윤미
강남B 김 건 박상훈 오윤선 이상현 이영진 이향선 이해원 임시연 정세훈 정은희 홍미경	도곡 신영주	송파 강단비 김민정 박희운 양희찬 이장원 이효희 정옥화 홍석하
강남C 서준원 양흥룡 조성경 최혜성 홍승수	분당A 김배립 박준형 임병완 최예진 함지형	양재 강옥규 박광진 서미경
강남D 김현준 박정열	분당B 김설희 서광주 송경애 이중현	푸른누리 고정미 김범수 김현우 최미진 최형원 함승현 황성현
경기A 김미숙 박지현 신원경 유은희	서초A 백현주 이상범	
	서초B 고상기 김정미 신두섭 오성심 이정호	
	서초C 김지연 서연희	



“날마다 천국 누리는 행복한 어르신들”

온누리요양센터 개원 12주년 감사예배

지난 9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온누리요양센터가 개원 1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조항진 장로의 대표기도, 입소 어르신, 온누리요양센터 직원, 양지 온누리교회 서빙헨즈봉사팀의 특순,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의 설교, 박준기 원장의 인사말, 정호욱 상임이사의 격려사, 우수 직원 표창식, 축하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육환 목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도 목사는 “우리

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다”고 설교했고, 정호욱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어르신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온누리요양센터는 온누리교회가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이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135명이 생활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S브릿지 창립 7주년 기념예배

13일과 20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33세부터 44세 미혼 청년들을 위한 ‘S브릿지공동체’ 창립 7주년 기념예배를 오늘(13일)과 다음 주일(20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를 주제로 드린다.

S브릿지공동체 창립 7주년 기념예배에서는 강미향 목사와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남성중창단, 멘토중창단, 찬양 The Voice 등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특순도 준비되어 있다.

강미향 목사(S브릿지공동체 담당)는 “S브릿지공동체 창립 7주년 기념예배에 33세~44세 미혼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자녀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모집

5월 20일과 27일 서빙고 선교관 402호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5월 20일과 27일 오전 8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2호에서 진행된다.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에서는 어린이 일대일의 비전, 아버지 양육자의 성경적 원리, 우리 자녀 이해

하기,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주제로 이기훈 목사, 신동식 목사가 강의한다. 대상은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상황에 따라 어머니, 조부모, 주일학교 교사도 가능)다. 회비 1만 5천원.

문의: 02-3215-3220

‘아트비전’ 5월 정기전 개최

6월 3일까지 서빙고 카페, 양재 원형카페

온누리 ‘아트비전’이 지난 1일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카페와 양재 온누리교회 햇빛회관 1층 원형카페에서 5월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화, 동양화, 판화 등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최은정 팀장(아트비전)은 “올해 표어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묵상해서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다”면서 “많은 성도들이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CGNTV ‘미디어 워크숍’ 실시

한강중학교 방송반 영상편집과 촬영 교육

CGNTV가 지난달 25일과 26일 한강중학교 방송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 4월 25일 CGNTV 별관A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워크숍에서는 조혜승 팀장과 주영희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기획안’과 ‘보이스 트레이닝’을 주제로 강의했다.

4월 26일에는 강준영 감독, 김성수 PD, 이성열 PD가 한강중학교에서 ‘영상촬영의 이해’와 ‘영상 편집 기초’를 주제로 강의했다.

임수빈 학생(3학년)은 “CGNTV 덕분에 영상편집과 촬영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정사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양재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20기’가 개강한다. 이번 하가훈은 경기도 안성 에벤에셀교회에서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문의: 010-6310-1785

‘이혼자행복학교 31기’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개강한다. 이혼한 성도, 이혼 위기에 있거나 별거 중인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2539-5665

■ 내가 쓴 독후감



/ 유정수 성도(마포공동체)

순종과 절대적 신뢰

몇 주 전 두란노서점에 독후감 쓸 책 두 권을 사러 갔다. 책장 앞에 서서 책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서 책을 펼쳐보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감동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늘 간단하게 감사기도를 했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나는 무사히 잠에서 깨어난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어느 때처럼 기도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크고 명확한 음성이 들렸다. 당시에는 왜 그런 음성이 들렸는지 몰랐다. 그 일이 있고나서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순모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함께 있던 신실하신 집사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확인시켜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읽으면서 하

나님의 음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겼다.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일관되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숭고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와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집중 없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내적인 간절함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겹세 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과 순종하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스스로 물어본다.

■ 세라핌합창단 부모 간증



/ 신금실 성도(세라핌합창단 학부모 회장)

찬양하는 입술

노래를 좋아하는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가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아이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CGNTV에서 세라핌합창단 단원모집 광고를 보고 딸아이를 세라핌합창단에 입문시켰다. 노래를 좋아하는 하영이는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긴 연습시간도 즐거워하며 열심히 다녔다. 함께 따라다니던 남동생 성욱이 도 자연스럽게 2학년 때부터 누나와 함께 세라핌합창단에 참여하게 됐다. 교회까지 한 시간을 차로 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차 안에서 남매가 화음을 넣으며 부르는 찬양소리를 들으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연중에 필요에 따라 세라핌합창단의 찬양이 올려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실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부족한 찬양일지라도 은혜를 부어주신다. 연말에는 1년 동안 연습했던 곡들로 정기연주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연초에 찬양 아웃리치를 간다.

세라핌합창단 5년 차인 하영이는 러시아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한 적이 있다.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아웃리치 때

에는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시골마을에 갔다.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세라핌합창단이 선보인 찬양공연을 보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천국을 경험했다.

세라핌합창단 부모들은 뒤에서 중보기도하면서 아이들의 간식과 의상 등을 챙기는 일을 한다. 세라핌합창단원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이들만큼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해가 가면 갈수록 세라핌합창단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만해도 되는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세라핌합창단에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배우는 것 같다.

어느 날 잠들기 전에 하영이에게 세라핌합창단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세라핌합창단은 기쁨이고 내 인생의 선물이야”라고 간증했다. 세라핌합창단 아이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하는 삶에 젖어있다. 세상의 어떤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아이들을 흔들어진다고 해도 찬양의 고백을 통해 이겨낼 것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의: 010-4775-2403

■ 프랑스어예배 스태프 간증



/ 박성희 성도(프랑스어예배)

“프랑스어예배에 오세요”

28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중고등부 교사, 일대일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섬겼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 지금 나는 프랑스어예배에서 일대일사역과 통역을 하고 있다.

나는 10년 전 불어를 처음 배웠다. 외국어 하나쯤은 배워두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몇 년 전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프랑스에 다녀왔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어권 사역에 대한 소망과 프랑스어에 대한 배움 열정이 더욱 커졌다. 온누리교회에 프랑스어예배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는 4년 전 처음 신설됐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만들어졌다. 프랑스어예배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프랑스어예배에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예배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불어권 나라에 사는 성도들이나 예술계통에서 일하는 분들, 한국에 잠깐 여행을

온 분들도 참석한다.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다. 그분들의 인생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도 들을 수 있다.

프랑스어예배 스태프들은 모두 자원해서 섬기시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없이는 섬길 수 없다. 매주 월요일에는 함께 모여 프랑스어예배, 세계선교, 불어권 선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다.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성경공부를 한다.

많은 성도님들이 프랑스어예배에 관심은 있는데 참석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다. 주저하지 말고 프랑스어예배에 참석해도 된다. 불어를 못해도 상관없다. 프랑스어권에 선교적 관심과 문화적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스태프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어예배에서 프랑스어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다.

■ 공사랑 축구선교회 간증



/ 공만식 안수집사(공사랑 선교위원)

또 하나의 도구
‘스포츠 선교’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쓴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책을 읽고 매료되어 2001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날 이후 매일 이어지는 예배와 유익한 프로그램에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틀에 맞춘 듯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조금씩 염증을 느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싶었다.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했다. 나는 이러한 규칙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보다 율법적인 압박처럼 느껴졌다.

2004년 4월 주일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매력적인 제안을 하셨다. “교회부터 오시라”는 말씀보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공사랑에 가시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사랑에 가세요”라는 말씀이었다. 단순하고 명료했고 복잡하지 않았다. 시원함이 느껴졌다. 그 말씀이 온누리교회 축구선교회 공사랑이 태동하게 된 계기다. 그날 이후 마음이 맞는 몇몇 분들과 함께 토요일에 시간을 정했다. 제대로 된 유니폼도 없고 정해진 운동장도 없었지만

자유함 속에서 공을 차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지난해 큰 사고를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비록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뛰고 달렸던 공사랑 활동이 빠른 회복의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한다.

온누리교회의 대명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선교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세계선교를 고민을 해보며 시의적절한 선교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이념과 사상이 다른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망설임 없이 스포츠라고 확신한다. 얼마 전 탁구 남북단일팀이 구성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을 포함한 복음 불모지에 대한 선교 마중물이 스포츠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의 단순했던 신앙생활의 돌파구가 축구선교회 ‘공사랑’이었듯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선교를 이뤄가기를 꿈꾼다. 6월 6일에 있을 ‘온누리 스포츠선교 데이’ 행사가 기대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의: 010-6490-7131

장로칼럼

‘길공동체’를 위하여



한중희 장로
(길공동체 대표 멘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눅 3:4).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직접 실천하는 온누리교회 청년공동체가 있다. 2007년 시작해서 가장 부흥한 청년공동체 중 하나이다. 2013년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훌쩍 떠나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지역에 예배당지를 튼 ‘길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청년들을 문화와 젊음의 거리이자 가장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가 팽배한 대학로로 보내셨을까? 그 정확한 뜻을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5년 동안 길공동체는 광야와 같은 대학로에서 하나님의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길공동체는 더욱 충성되고,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다. 그간 한성대학교 강당, 소극장, 동숭아트센터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예배드릴 공간을 격정해야 했는데 지난 4월 초 한성아트홀로 예배처소를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린다. 길공동체는 올해가 새로운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길공동체를 거쳐 간 많은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대학로에서 함께 전하고 외쳤던 복음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무릎 꿇고 수많은 기도를 쌓았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뿌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지

역 복음화를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거리에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CCM 가사가 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CCM 가사처럼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을 거치며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길공동체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려면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변화’가 아닌 ‘변환(transform)’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청년들이 진정한 회개,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개인과 공동체에 차고 넘쳐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한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길공동체가 놀랍게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대학로가 십자가의 도(The Way)로 온전히 덮이고, 마로니에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미스바가 되는 꿈과 환상을 믿음으로 그려본다. 땅 끝 같은 이곳에서 오늘도 사명과 소명으로 헌신하는 길공동체 청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주시고,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칼럼

멋쟁이 하나님



윤춘경 권사
(수원 온누리교회)

나는 7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7살이 되던 해 언니를 따라 교회를 간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수원으로 시집을 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교사, 식사봉사, 전도팀, 문화사역 등 다양한 봉사를 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했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구역장과 다섯 구역을 담당하는 조장이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내 안에 누군가를 섬길만한 자원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영적으로 탈진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셨다. 얼마 후 우연히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다. 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었다.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옮길 수 없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2005년 수원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온누리교회 철야기도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남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특별히 남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남편은 예배시간에 졸지 않고 새벽예배에도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헌신된 종으로 세워졌다.

수원 온누리교회에 와서 처음 받은 훈련이 ‘와이미션’이다. 하나님께서는 와이미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셨다. 자녀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꿈을 주셨다.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 어른이 되었으니 부모의 경제적인 짐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불편한 마음을 떨쳐 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면 주님은 “자녀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기로 결단했다. 지금은 아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각자가 품은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와이미션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에는 나만 생각했었다. 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와이미션 훈련을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와이미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지금 나는 수원 온누리교회 와이미션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새로운 소망도 주셨다.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됐다. 각 나라와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와이미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열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이미션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신앙에세이



이경숙 전도사
(안산M센터)

대학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졸업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고 취직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 생활하는 나를 다시금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부르셨다.

“네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즈베키스탄 민족을 섬길 수 있겠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2년 동안 사역했다. 단기선교를 마친 나를 하나님께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로 부르셨다. 신학대학원으로도 인도하셨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장기선교사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국내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다. 싱글여성 선교사가 무슬림 남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선교본부 리더가 우즈베키스탄 예배공동체를 개척하자고 요청했고 그 사역에 동참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슬림을 대상으로 우즈베크어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 ‘우즈베크족’이 이미 국내에 3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신학대학원 3학년 때부터 매주 경기도 안산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서울 서빙고동에 살면서 경기도 안산을 매주 3-4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땅 밟기기도 했다. 첫 해 길거리에서 연락처를 받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영혼들이 70명이 넘는다.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별로 없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영혼들이 우즈베크어를 하는 한국인 여자가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소문을

열방의 영혼들이 모이는 곳

듣고 찾아오기도 했다. 그들과 1-3개월 교체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어떤 무슬림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도 사역자가 절대로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주민들은 도움이 필요해서라도 우리에게 연락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진 우정이라 그런지 만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안산M센터는 열방에서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안산M센터는 1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예배 개척을 시작으로 30여 개 예배를 안산뿐 아니라 서빙고, 김포, 인천, 화성, 평택에서 드리고 있다. 나는 주말에는 우즈베크어 개척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다문화 차세대 교육 및 선교사역을 섬기고 있다.

주중에 하고 있는 ‘스타트리 아카데미 온누

리지리아동센터’는 2011년 4월부터 시작했다.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기관이자 선교기관이다. 스타트리 아카데미 온누리리지리아동센터에는 총 8개국에서 온 35~40명 정도의 이주민 자녀들이 오고 있다.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성들의 자녀들이다. 이 아이들이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안산M센터에 와서 부족한 한국어나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운다. 미술,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 수업도 듣는다. 문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개인상담, 독서, 미술치료, 통합치료, 체육활동 등도 하고 있다. 안산M센터 스타트리 아카데미 온누리리지리아동센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주민들을 품고 사랑해줄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안산M센터에 아웃리치 올 공동체와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31-491-9650

2018 온누리교회 임직자 기준 및 일정

7월 12일 권사·안수집사 최종 임직후보자 결정 순장은 1년마다 교사는 2년마다 학점 부여하는 규정 신설

2018 온누리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 기준 및 일정이 정해졌다. 캠퍼스 운영위원회와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임직검토대상자를 선발한 다음 임직심의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임직심의위원회는 6월 23일까지 임직검토대상자 선발 및 당회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당회운영위원회는 7월 12일 최종 임직후보자를 결정한다. 또한 순장과 교사 경력에 학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동체 순장으로 섬긴 기간 매 1년마다 자유선택과목 이수로 인한 1학점씩을 주어 최대 5학점(5년)까지 인정한다. 차세대 교사로 섬긴 기간이 만 2년이 되면 자유선택과목 이수로 인한

1학점을 주며 그 후에는 1년에 1학점씩 주어 최대 5학점(6년)까지 인정한다. 순장과 교사를 동시에 섬긴 경우에는 각 취득학점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된 총 학점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순장과 교사 경력은 1년 단위로 학점을 부여하므로 1년 미만은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5년 상반기 1학기, 2016년 하반기 1학기를 섬겨도 이를 합산해서 1년(1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반을 섬기고 한 학기를 쉬었다가 다시 1년 반을 섬긴 경우에는 2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연속된 2학기를 섬긴 경우(예: 2015. 9~2016. 6)에는 이를 1년(1학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대학청년

부, 한터의 순장은 학점 부여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순장 또는 교사로서 성실하게 섬긴 것을 전제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나 그 성실성의 판단은 추천하는 공동체나 사역본부가 판단하며 학점 부여에 동의하여야 한다. 순장과 교사 경력에 의한 학점 부여신청자는 iCare 또는 nCare상에서 섬긴 기간을 증명하는 화면을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순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공동체나 사역본부의 담당교역자가 작성한 ‘학점 인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사·집사 임직검토대상자 자격 기준 및 과목별 인정학점은 아래 표 참조.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과목별 인정학점(선택)

구분	스쿨이름	주	인정학점
자유선택 (회복)	기쁨의 회복학교	8주	2학점
	내적치유학교	2박3일	2학점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8주	2학점
	치유사역자스쿨	10주	2학점
	프리덤스쿨	10주	2학점
	하트스쿨(부모)	12주	2학점
	하트스쿨(사역자)	12주	2학점
	한마음 정신건강세미나	4주	1학점
	주제별 회복학교-기쁨의 샘	14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 -뒤늦게 찾아온 행복	12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동반의존	10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분노	14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불안	11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수치	14주	2학점
	주제별 회복학교-자아회복	11주	2학점
자유선택 (대학청년)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1~3단계)	8주 + 1박2일	각 2학점
	관계기술훈련학교 (트랙0~트랙3, 세미나1~3)	8~10주 (일부 2박3일)	각 2학점
	CDC	9~11주	2학점
	HEART OF WORSHIP	9~11주	2학점
	WIN THE CAMPUS	9~11주	2학점
	XEE	9~11주	2학점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	9~11주	2학점
자유선택 (양육)	나를 발견하는 여행	9~11주	2학점
	비전의 사람	9~11주	2학점
	JDS	22주(주2회)	4학점
	기도학교	12주	2학점
	사이닝글로리	3박4일	2학점
	성령수련회	1박2일	1학점
	창조신앙스쿨	5주	1학점
자유선택 (여성)	창조신앙 아카데미	5주	1학점
	창조과학 탐사과정	1박2일	1학점
	세계관 학교	4주	1학점
	더 깊은 묵상	6주	1학점
	목요기도학교	8주 또는 12주	2학점
자유선택 (선교)	무릎선교기도학교	10주 또는 12주	2학점
	여성예배찬양학교	5주	1학점
	좋은어머니스쿨	8주	2학점
	복한선교학교	7주	1학점
	이주민 선교학교	5주	1학점
자유선택 (가정)	와이무슬림	6주	1학점
	한국어선교학교	9주	2학점
	총체적 선교스쿨	5주	1학점
	갈렙 선교학교	8주	2학점
	아름다운동행	8주	2학점
	이혼자행복학교	5주	1학점
	젊은부부학교	4주	1학점
자유선택 (사회선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박2일 * 4주	2학점
	행복한 부부학교	4주	1학점
	헬로맘임신 출산후 스쿨1,2	6주	1학점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1,2	6주	1학점
	일.하.세. 아카데미	4주	1학점
자유선택 (예배)	예배학교	4주	1학점
자유선택 (전도)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	9주	2학점
	온누리전도학교(5분전도 훈련)	10주	2학점
	전도폭발훈련학교 1~4단계	14주	2학점
자유선택 (차세대)	마더와이즈 (회복/지혜/자유)	11주	각 2학점
	가스펠 프로젝트 연대기적 성경공부 (위대한선지자, 약속의 땅, 왕국의 성립, 선지자와 왕,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8주	각 2학점
	Jump to Play 놀이소통교육	4주	1학점
	Jump to Jesus 신임교사교육	8주	2학점
	Jump to Class 대화법교육	8주	2학점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2018년 상반기부터 2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1학점)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와 '행복한 부부학교'는 학점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2018년 상반기부터 '창조과학스쿨'의 스쿨명이 '창조신앙스쿨'로 변경되었습니다.

권사·안수집사 임직검토대상자 자격 기준

기준 구분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연령	35세 이상(1983년 2월말)	50세 이상(1968년 2월말)	70세 이상(1948년 2월말)
세례일	5년 이상(2013년 2월말)	8년 이상(2010년 2월말)	5년 이상(2013년 2월말)
교회등록일	5년 이상(2013년 2월말)	8년 이상 (2010년 2월말) 집사 임직 후 3년 경과한 자 (2014년 12월 임직 및 이전 안수집사 임직자)	3년 이상(2015년 2월말)
기본 양육과정	QT Basic을 이수한 자(6월 9일 까지)		
일대일 양육	일대일 3명 이상 양육 완료한 자(6월 9일 까지)		
필수 양육과정	필수선택 12학점 또는 필수선택 10학점 + 자유선택 2학점 또는 필수선택 8학점 + 자유선택 4학점 필수선택 6학점 + 자유선택 6학점(6월 9일 까지) *순장은 1년차 이후부터 매년 자유선택 1학점씩 인정 교사는 2년차 이후부터 매년 자유선택 1학점씩 인정 순장, 교사 각각 5학점까지 인정하며 순장, 교사 함께 섬길 시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공동	순도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2017년 상반기~2018년 4월말 아이케어 순참석 기준 15회 이상) 십일조 및 성실하게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 자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타교회 권사 권사임직은 없음		

1. QT Basic 이수, 일대일 3명 이상, 양육과정 이수는 6월 9일(토)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자격 연수 계산의 기준일은 당해 연도 2월 말일로 한다.
3. 위 자격기준에 충족된 사람은 임직검토대상자일 뿐이며, 임직후보는 임직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직심의위원회와 당회운영위원회의 심의, 추천을 거쳐 당회가 결정한다.
4. 공동체운영위원회는 임직후보추천에 있어서 일대일양육 횟수나 취득학점 등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임직 후 적극적으로 사역을 섬길 의사 및 능력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5. '열린다성경'은 2018년 임직심사에 있어서는 필수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나 2019년 이후 임직에 있어서는 2018년 6월 30일 이전에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필수선택과목의 이수로 인정하며 그 후 이수한 경우에는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과목별 인정학점(필수)

구분	스쿨이름	주	인정학점
기초	큐티	4주	기초
	일대일 양육자반	16주	기초
	갈라디아서	7주	2학점
필수선택	로마서	8주	2학점
	성경통독(일독)학교	신약 8주 1학점 구약 8주 1학점	2학점
	순장학교	12주	2학점
	요한복음	8주	2학점
	하나님의 성품	8주	2학점
	Why Mission?	7주	2학점
	이사야 I (1-39장)	11주	2학점
	이사야 II (40-66장)	10주	2학점
	빌립보서	7주	2학점
	열린다 성경		
	-성서식물편, 성전과 절기편	8주	각 2학점

* '열린다 성경'은 2018년 2학기부터 필수선택과목에서 자유선택과목으로 변경됩니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 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송명여교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 895. 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 825. 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 565.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O31. 651. 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 437. 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5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5월 6일: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5월 13, 20, 27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종합관 (송도동 162-1) [중고등부 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송도동 8-10)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 프리스페이스 3층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0 오후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헤브라키즈 오후2시 대학청년예배 오후2시	
강 동 O2. 475.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래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래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O31. 331. 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어) / 11:00 / 3층 주선애홀 (본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벤텔러를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른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가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을 나눕니다.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문화사역이 만든 아름다운 가정
개그우먼 정지민, 가수 공희 부부



방송시간
5월 2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서로 최고의 동역자가 된
권승일 목사, 연주자 권병호 부자



방송시간
5월 2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찬양사역자 김명식, 송미애 부부가
들려주는 사랑과 화합의 하모니



방송시간
5월 18일(금) 오후 10시 40분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은혜로 사는 박은혜, 여선구 부부
그들이 말하는 가정과 사랑



방송시간
5월 22일, 29일(화) 오전 8시 20분

성경이 답하는 결혼과 동성애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결혼 제도의 미래



방송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50분

김남준 목사의 관계회복서 <가족>

성경에 기록된 가정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가정회복의 비법



방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10분